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신명기 4:32-34.39-40 제2독서 로마서 8:14-17 복음 마태오 28:16-20

◎말씀 < 구호가 아닌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삼위의 표현을 언제 하시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미사 중에, 인생의 시작과 끝에도 우리는 삼위의 신비를 고백하며 삼위의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4대 교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유치부 친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자기 엄마에게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세워 클로버의 앞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는데 그건 한 명이야. 꽃잎이 세 잎으로 되어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또 엄마가 우리 낳아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 누구야? 진짜 딸 맞아? 검사해봐’ 이렇게 해야만 아는 게 아니지? 나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지? (응)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땐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있다고 믿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믿잖아. 그것처럼 믿는 거야. 이제 좀 알겠지?” 지금껏 제가 해온 설명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똑 부러지는 설명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라는 표현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체험했던 하느님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신앙고백 때에도 성부는 이러한 분, 성자,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신앙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삼위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냐면 신앙고백은 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체험한 것을 아무리 고백해본들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만든 분이시죠. 그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창조사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종살이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분입니다. 즉, 힘 있는 자를 편드는 것은 우리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죽은 이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단죄하는 것 역시 하느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을 하느님처럼 귀하게 제대로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요 벗이자 보호자인 그분을 자주 만나서 나만의 믿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29일(화)	연중 제8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460.00 \$ 1,428.00
5월30일(수)	연중 제8주간 수요일	오후7시30분 (성모의 밤)	성소후원 사회복지	\$ 130.00 \$ 90.00
5월31일(목)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	오후7시30분	성물방 주일학교	\$ 77.95 \$ 1,460.00
6월 1일(금)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원캠페인 사제관건축	\$ 0.00 \$ 0.00
6월 2일(토)	연중 제8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계	\$ 5,645.95
6월 3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3명 성인: 191명
교무금봉헌자	국부자(5-8월)최재진.이수동(5-6월)신영후(4-5월)김화연(1-5월)김선식.장현철.김창영.이재덕 김채홍.김평옥.임원호.이강덕.김길록(5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고해성사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고해성사(告解聖事)’입니다. 죄의 용서와 친교의 회복을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거행하는 ‘고해성사’는 성사를 받는 사람의 회개와 참회를 전제로 하기에 회개의 성사 또는 참회의 성사라고도 하고,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때문에 화해의 성사라고도 합니다.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한때 이를 강조하여 고백성사라고도 불렀는데, 이 용어는 2000년 천주교 용어집이 나오면서 죄의 고백과 화해를 동시에 드러내는 ‘고해성사’라는 말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3)라고 하시며 고해성사를 제정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죄의 용서 또한 하느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살펴 알아내는 성찰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뉘우치는 통회,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 사제에게 있는 그대로를 진실 되게 밝히는 죄의 고백, 그리고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볼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부활 대축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는 판공성사(判功聖事)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주교회의에서는 사목지침(제90조 2항)을 수정하여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의무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 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염모니카
-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정행순.마리아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송돈희.요셉
연	성낙순.요안나의 영혼	이명호.안셀모가정	생	최응철.레오의 영육간 건강	임.시몬
연	서정길.아길로의 영혼	김상길.마티아			
연	진.레이션의 영혼	김용문.요한			

간장종지

◎흙씨의 꿈◎

어느 날 드디어 그 흙씨는 공중을 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흙씨가 다가오면 손을 휘휘 저었다. 찌그러진 광통들 사이, 지친 흙씨는 이윽고 멈추었다. 그 때였다. 한 목소리가 흙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꽃으로 피거라” 성령의 목소리였다.

강은교 글라라·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	--	--

--	--	--	--

